

가톨릭 사제복식에 대한 인상형성 연구

김 광 경 · 조 정 미* · 남 미 우**

우송정보대학 패션디자인학과,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장안대학 의상과

The Impression of on Korean Catholic Priest's Ritual Dress

Kwang-kyung Kim · Jung-mee Cho* · Mi-Woo Nam**

Dept. of Fashion Design, Woosung Information College

*Clothing and Textiles Major,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rrespond author

** Dept. of Clothing, Jangan College

(1999. 3. 17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ritual dress on korean catholic priest's impression.

The subject consisted of 415 undergraduated students.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3 type color photographs stimuli of catholic priest model and 7-point sementic differential scale composed of 49 bipolar adjectives representing personal traits.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The major findings drawn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our factors emerged to account for the dimentional structure of the impression of each dress style. Four factors were titled as open-hearted mind, symbolic meaning, nature of priest, potency. The open-hearted mind factor was the largest throughout the 3type ritual dress. Casula had a positive effect on open-hearted mind, nature of prist and negative on symbolic meaning, potency. Sutan had a positive effect on open-hearted mind, potency, nature of priest and negative on symbolic meaning. Black suit with roman collar had a positive effect on open-hearted mind, symbolic meaning, nature of prist and negative on potency.

Therefore the ritual dress had significant effect on korean catholic priest' impression of open-hearted mind, symbolic meaning, nature of prist, activity and potency

Key words: ritual dress, korean catholic priest, impression; 종교복식, 신부, 인상

I. 서 론

종교는 경험, 사상, 의례, 집단 등의 여러 요소를

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화 현상인 반면 각 종교에 따른 하나의 일관된 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종교는 그 믿음에 근거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수반하는데, 특히 종교 의례란 절대 신비(絶對神秘)를 현실에 재연하여 신도들을 그 신비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각 종교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명확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때 종교 복식은 종교 의

※ 본 연구는 우송 정보 대학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례에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그 종교의 믿음 체계가 인체 상에 특정한 존재 양식으로 구체화되고 상징화된 것이다.

종교는 보이지 않는 신과의 관계 및 영혼의 차원과 같은 추상적 개념들을 다루는 것으로 상징적 표현을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특히 특정 종교의 성직자가 입는 복식은 종교적 의미 및 가치관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많은 종교적 의미와 암시를 상징하고 있으며, 신분, 품위 제사의 거룩함과 성스러움, 종교 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역할 및 지위 그리고 상황 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김희선, 1993).

이러한 종교 복식의 상징적 의미는 최근에 와서 더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 예로서 종교 개혁후 개신교는 낡은 틀을 벗어 던진다는 뜻으로 사제복을 거부했으나 최근에는 평신도와 구별과 일체감 고취 등을 위해 제복을 입는 나라가 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 기독교 총연합이 로만칼라 형태를 기초로한 목사복을 디자인해서 제시하고 가립 교단의 목사들에게 제복을 권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오랜 전통을 가진 가톨릭에서는 타종교에 비해 일찍부터 교회 자체 내에서 종교 복식에 뚜렷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가톨릭에서도 초기에는 일반 복식과 구분이 없다가 4세기경부터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전례복을 규정하여 입기 시작하여 현대까지 다양한 종교 복식을 발전시켰다. 전례복은 제복(祭服)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를 뚜렷이 표현하고 위엄과 존경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신과 인간과의 교제를 하는데 도움을 주어 신도들이 신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자로서 엄숙하고 경건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성한 분위기를 주며 이때 전례복의 상징과 색채를 통해 전례 의식 자체의 기쁨과 슬픔을 상징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예배 참여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성직자가 그 옷을 착용할 때는 종교적 이념을 되새기고 강화하는 구실을 하였다. 따라서 이 복식들은 카톨릭 교회법에 의한 규칙과 규격에 따라 색상, 전체 형태 및 실루엣, 세부 형태, 기타 장신구들이 미사의 목적

이나 성직자의 지위와 역할 및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어 착용되어지고 있으며, 각각 고유의 상징적 의미에 의한 종교적 의사 전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복은 상징적 상호작용중 의사 소통 수단과 함께, 개인과 집단, 특히 종교 집단의 행위를 위한 "소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소도구가 착용자가 의도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각자들은 착용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미에 기초하여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을 하고 동시에 착용자가 의도한 의복 상징에 반응한다. 이것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복의 일반적인 상징을 인식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징을 인식해야만 한다. 즉 착용자가 의복에 부여한 의미는, 관찰자에 의해 해석된 의미와 꼭 같아야 만이 공유된 의미를 갖게 되고 관찰자는 착용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인상형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착용되어지고 있는 사제들의 복식 유형이 교회가 의도한 상징적인 효과와 일치하는가를 검토하여 현재 가톨릭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제의와 사제복 토착화 운동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가톨릭 사제복의 종류와 기능, 상징적 의미의 측면과 가톨릭 사제복의 인상형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가톨릭 종교 복식과 상징성

종교 복식의 역할은 종교의 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여 대부분의 종교 의례에서 성직자들이 일반인과 다른 복장으로 의례를 주관한다. 종교 복식은 이를 착용하고 의례에 임하는 성직자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며 종교 의례에서 성직자의 위상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의례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신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며 신에 대해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의 가시적인 수단

이다(임상임, 김현경, 1998). 가톨릭 사제가 착용하는 복식은 공식적으로 평상복과 전례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평상복은 일상 사목활동 시에 착용하는 사제의 제복(통상적으로 사제복 혹은 신부복으로 칭함)이고, 전례복은 전례 의식(통상적으로 미사라 칭함) 때만 특별히 착용하는 복식이다.

1) 평상복

평상시 착용하는 사제복은 수단(soutan)과 수단이 좀더 약식화 된 형태인 로마 칼라의 셔츠를 받쳐입은 신사복 형태를 들 수 있다.

수단이라는 말은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이라는 뜻(한국교회사 연구소, 1989)으로 신학생에서부터, 부제, 사제들이 모두 입을 수 있는 성직자의 평상복이다. 색상은 검은색, 흰색, 적색, 진홍색 등이 있다. 흰색은 교황이, 적색이나 진홍색은 추기경이나 주교들이 착용하는 색이고, 평사제들은 주로 검은색을 착용하나 흰색은 계급에 상관없이 여름 철에 착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계급을 나타내는 색상의 띠를 맨다. 수단의 형태는 로마 칼라(roman collar)의 긴 원피스 형태로 길이는 발꿈치까지이다. 치마 부분에 좌우 양옆으로 2개의 주름이 잡혀 있으며, 앞이 완전히 트여 30~40개의 작은 단추가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수단이 나타내는 의미는 하느님, 이웃,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고 속세를 떠났으며, 속세로부터 온 몸을 가린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즉 수단은 자신의 속세적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며 무조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함을 상징하며 기독교의 봉사 정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검정색은 땅을 상징하는데, 항상 모든 사람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고, 원하지 않는 잡다한 쓰레기를 모두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땅은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쓰레기를 부패시켜 변화시키고, 부패로부터 생명과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으로 바꿀 힘을 내포하게 됨을 의미한다(문선구, 1995, 최상범, 1985).

과거에는 수단이 사제의 평상복으로 엄격히 착용되어져 왔으나 현대에 와서 이 긴길이의 거추장스러운 수단의 착용을 점점 기피함에 따라, 근래에는 미사 때나 특별한 행사시에만 착용하고, 일상 생활이나 사목활동시에는 일반 신사복에 로마 칼라의

셔츠를 받쳐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검은 신사복에 검은 셔츠를 받쳐입는 것이 정식이나, 특별히 격식을 갖추지 않는 자리에서는 신사복이나 셔츠에 회색 등 낮은 무채색 톤의 다양한 색상이 착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제의 평상복에서 일반인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특징적인 요소는 로마 칼라로서 독신과 정결, 성직자의 신분, 그밖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예속되어 있음을 상징한다(최상범, 1985).

2) 전례복(典禮服 : vestments)

전례(典禮)란 가톨릭에서 행하여지는 종교의식을 말한다. 전례복(典禮服 : vestment)이란 전례 의식을 집행하는 성직자가 교회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는 복식인데 전례복을 착용한 사제의 몸짓과 전례를 위한 동작이나 언어 등의 뒷받침으로 전례의 뜻을 시각적으로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며(손세희, 1976), 일반적으로 제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례복은 성직자가 미사, 성사, 집행, 행렬, 강복 등 모든 의식때 교회의 규정에 따라 입는 예복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사제가 경신례를 행할 때는 구약 시대부터 특별한 예복을 입어 왔다. 이는 사제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고, 일상 생활을 떠나 제사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표현하고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교의 전례복은 초대 교회 시대, 특히 박해 시대에 사제나 평신도들이 입었던 옷에서 비롯되었는데, 사제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초기 교회를 상기시켜 주고 교회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계속 입게 되었다. 중세에 와서 제의의 가치수가 정해지고 형태와 장식에 있어 쇠신이 일어났다. 제의의 형태는 각 지역의 요청과 관습에 따라 주교 회의가 결정해서 교황청의 인준을 받게 된다. 장식은 전례에 부합되게 전례를 드러내는 표상이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로마 전례에 사용되는 전례복은 크게 외부에 입게 되는 비단으로 된 제의와, 내부에 입게 되는 아마포로 된 제의로 나누어진다. 제의, 부제복, 영대는 전자에, 개두포, 장백의는 후자에 속한다(한국 가톨릭 대사전 편찬 위원회, 1989). 일반적으로 주사제는 수단-개두포-장백의-띠-영대-제의의 순으로 착용하고 미사를 집전하게 된다.

(1) 개두포(蓋頭布 : amice)

사제가 미사 때 가장 먼저 착용하는, 아마포로 된 장방형의 흰 천으로 양쪽에 긴 끈이 달려 있어 어깨 위로 걸치게 된다. 고대 로마인들의 목도리에서 유래된 것으로 후에 로마에서는 성직자들이 장백의를 입을 때는 반드시 개두포를 착용하였다. 현재는 사제가 수단을 입지 않았을 경우 장백의가 평복의 목까지 다 덮지 못할 때 개두포를 착용한다. 린렌으로 제작되며, 크기는 가로 80cm~90cm, 세로 60cm~70cm이고 양쪽 끝에 긴 끈이 달려 있으며 그 가운데 선명하게 십자가가 하나 장식되어 있다.(김현, 1982)개두포는 '구원의 투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사제는 개두포를 착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주여 내 머리에 투구를 씌우사 마귀의 공격을 막게 하소서."(이기정, 1996)

(2) 장백의(長白衣 : alb)

사제가 미사때 개두포 위에 입을 발끝까지 내려오는 백색의 긴 옷,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의 어깨에서 발등까지 내려오는 소매 없는 튜닉에서 유래되었는데, 로마제국 초기에는 넓은 소매를 달아서 입었다. 오늘날과 같은 장백의가 되기까지 성직자들이 계속해서 착용해 왔는데 수단을 가리기 위해 길이가 길어 졌고 무릎을 꿇을 때 용이하도록 폭이 넓어졌다. 장백의의 허리 부분은 띠로 묶어 끌리거나 벌어지지 않게 한다(띠 없이 입을 수 있는 장백의도 있다). 장백의가 평복의 목을 다 덮지 못하면 장백의를 입기 전에 개두포를 착용해야 한다. 장백의를 조금 짧게 변형시킨 중백의로 장백의를 대신할 수 있으나 제의를 입게 될 때와 제의 대신 영대를 하게 될 때, 영대와 함께 부제복을 입을 때는 대신 할 수 없다. 장백의는 사제가 미사 성제 때 가져야 할 육신과 영혼의 결백을 상징한다. 사제는 장백의를 입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 할 수 있다. "주여, 나를 결백하게 씻으시어 내 마음을 조차케 하시고 고양(羔羊)의 피로 결백하게 되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최윤환, 1986)

(3) 띠(cincture)

사제가 장백의를 입을 때 길이가 긴 장백의가 끌리거나 벌어지지 않게 허리를 매는 끈이다. 이 띠의 길이는 3~4m이며 양쪽 끝에 장식술이나 고리가 달

려 있다. 띠는 일, 싸움 등 결의의 상징으로 악마와의 투쟁, 극기의 필요성을 각성케 한다. 사제는 띠를 매면서 입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 할 수 있다. "주여, 조찰 함의 띠로 나를 매어 주시고 내 안에 사욕을 없이 하시어 절제와 정결의 덕이 있게 하소서"(이기정, 1996)

(4) 영대(領帶 : stole)

성직자가 자신의 성무 집행의 표시로 목에 걸쳐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긴 띠이다. 영대의 기원은 고대 동방에서 사용하던 술이 달린 화려한 목도리로부터 유래되었다. 4세기에 처음으로 부제들이 명예를 표시하는 휘장으로 사용했고, 주교와 사제들이 목에 걸고 미사를 드렸다. 영대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한 것은 6세기부터였다. 영대는 길이 2.5미터, 넓이 9센티미터 정도로 제의와 같은 천으로 만들어진 다. 부제는 왼편 어깨에서 오른편 허리 밑으로 매며 사제와 주교는 가슴 앞에서 평행하게 내려 맨다. 고해성사 때는 보라색의 영대를 성체강복과 병자 성사 때는 흰색의 영대를, 강론 때는 그날에 해당하는 제의색과 같은 영대를 하게 된다. 영대는 성직자의 직책과 의무, 성덕의 상징으로, 사제는 영대를 착용할 때 친구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 할 수 있다. "주여, 주께 봉사하기에 합당치 못하오나 원죄의 타락으로 잃은 불사 불멸의 영대를 내게 도로 주시어 주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최윤환, 1986)

(5) 제의(祭衣 : chasuble, casula)

사제가 미사를 집행 할 때 장백의 위에 입을 반수원형의 옷으로 로마인의 옷(파에놀라, paenula)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수 있다. 소매가 없이 앞뒤로 늘어지게 양옆이 터져 있다. 제의는 예수의 멍에를 상징하고 애덕을 표시한다. 보통 비단이나 벨벳 등의 고귀한 옷감으로 만들어지며 십자가등의 여러 상징을 자수로 장식한다. 또한 각 典例週年에 따라 그 典例週年이 의미하는 종교적 사건의 상징성을 제의의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색깔은 백색, 적색, 녹색, 자색 그리고 흑색의 5가지 색상이다. 그러나 이들 색상은 시대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점차 허용되는 색깔이 추가 되기도 하며, 금지 또는 특정 교구에만 인정되는 등의 법령으로 규제 되기도 한다.

2. 가톨릭 사제복과 인상 형성

사회적 맥락에서 제복은 다른 의복에 비해서 쉽게 눈에 띄어 짧은 시간 안에 착용자를 이해하게 한다. 제복이란 라틴어의 우누스(unus: 하나의)와 포르마(forma: 형태)에서 생긴 합성어로서 일정한 형태의 외양(uniform: 유니폼)을 가리킨다. Flügel(1950)은 제복을 변하는 의복(fashionable costume)과 구분하여 변하지 않는 의복(fixed costume)이라고 했으며 제복은 착용자의 신분, 역할, 사회적 지위, 집단의 소속감을 부여하기도 하며 상징하기도 하는 비언어적 의사 소통의 단서이고 종교 복식, 군복 등이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된다. 이러한 제복은 대인 지각 시에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여 제복 착용자를 범주화시키며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착용자의 인상을 형성하게 한다.

범주화는 대인 지각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자극물을 보았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유목화 작업이다. 범주화 이론은 관찰자가 지각 대상을 시각적 특징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범주화하여 그 결과 자극물의 복잡성을 줄이고 조직화하므로 정보처리를 신속하게 한다. 이때 시각적 범주화는 두드러진 단서에 기초하며 관찰자들의 두드러진 단서에 주의를 집중하므로서 편견과 고정관념적인 정보처리를 하게 된다. Allport는 고정 관념이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인적 속성에 관한 신념들의 집합으로 집단에 대한 일반인의 내현 성격 이론이고(Zebrowit, 1990), Mc Cauley등은 고정관념을 표적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 짓는 특성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 하였다. 이러한 고정 관념의 경험적 연구의 고전은 Kat와 Braly(1933)의 연구로서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용사 체크리스트 기법을 사용하여 인종의 고정 관념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현대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고정관념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도구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고정관념은 인간의 한정되어 있는 정보처리 역량을 도와주어 많은 정보를 적절히 처리

하게 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대상을 단순화시키거나 범주화함으로써 인상 형성에 오류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 집단의 행동이 기대와 다르면 대비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남성-유능의 고정관념에 반대되는 무능한 남자 응시자는 남녀 평가자가 모두 똑같이 무능한 여자 응시자 보다 더 낮게 평가한다(Deaux & Taynor, 1973). 또한 남성-정서적 강인함의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남자는 수동적 의존적 여자 보다 더 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톨릭에서 남성 수도자들의 수단 착용은 수도자들이 남성다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의복에서 성(性)성의 부재는 양성간의 관계를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즉 신부나 수녀의 이례적인 복식은 남성적 여성적 이미지에서 탈피한 중성적 이미지를 형성 할 수도 있으나 수도자들은 일반 복식과 구분되는 중성적 이미지의 수도복을 통해 종교의 신성함을 나타내고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였다는 상징을 갖게 되는 것이다. Bouska와 Betty(1978)의 연구에서 로만 칼라를 단 성직자와 비즈니스 슈트를 입은 사업가는 캐주얼한 의복착용자 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았다. Coursey(1973)는 학생들이 교수에 대해 형성하는 인상에 의복(사제복장, 신사복)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 로만 칼라의 착용자는 도덕적 행동과 더 관련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으며 또한 로만 칼라를 착용한 교수의 특이한 행동을 알고 있을때 조차도 학생들에게 심리적 격리, 비범함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Long(1978)은 카운슬러가 수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들의 반응을 연구한 결과 피험자들은 수녀가 아닌 경우보다 수녀인 경우 더 보수적으로 반응하였고 수녀복 착용자의 질문에 대한 반응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따라서 종교적 헌신을 나타내는 상징을 착용하는 것은 경건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 문제의 규명을 위해 준 실험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의 가설 및 측정 도구

는 다음과 같다.

1)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인상을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미분 척도로 구성되었다.

(1) 실험 디자인 : 실험 디자인은 피험자간 설계이며 의복 유형(3)의 요인 설계로 구성되며 3개의 소집단에 대하여 120명씩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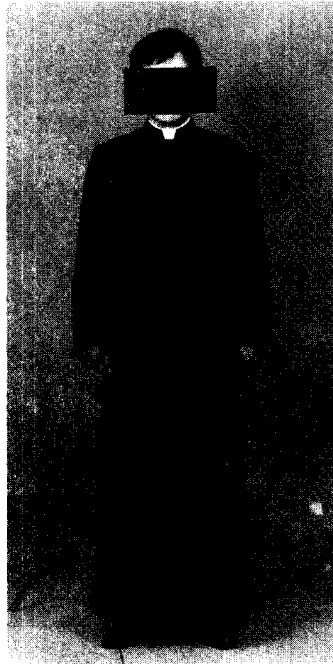
(2) 자극물 제작 : 본 연구의 자극물은 가톨릭 사제의 실물 사진으로 제작되었으며, 착용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3개의 사제복을 모두 동일인이 착용하였다. 자극물의 구성은 공식 미사때 착용하는 전례복인 제의 한 종류와 일상 사목 활동 시에 착용하는 사제의 제복(통상적으로 사제복 혹은 신부복으로 칭함) 두 종류로 구성하였다. 제의는 일반적으로 동일 형태에 4가지 색상이 교회력(敎會曆)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나 색상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흰색의 제의를 사용하였다. 사제복은 전통적 격식에 따른 수단과 현대에 와서 보다 약식화된 신사복 형태의 사

제복 2가지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실제 측정 시에는 신부님의 얼굴이 노출되었으나 본 학회지 게재에는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얼굴의 일부를 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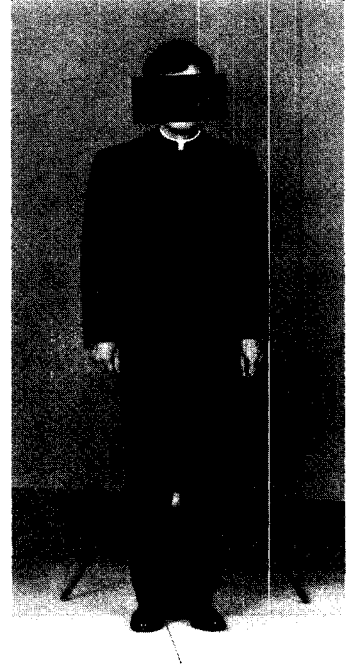
(3) 의미미분 척도 : 자극물 속의 의복 착용자에 대한 관찰자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등간형 7점 척도로 문헌 조사와 사전 조사 및 예비 조사를 통하여 개발되었다. 여자 대학생 20명에게 제의와 신부복을 착용한 자극물 사진을 보고 인상을 자유 응답하게 한 사전 조사 결과와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형용사 쌍을 토대로 63개의 형용사 쌍을 선택하였다. 이들중 전문가 집단(의류학 교수 3명)의 평가에 따라 의복 착용자의 인상을 표현하기에 부적절한 형용사쌍 14개를 제외한 49개의 형용사 쌍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2개 이상의 요인 성격을 띤 것, 요인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것, communality가 낮은 것, 다른 형용사쌍과 유사한 것은 본 조사에서 제외 시켜 최종 39개의 형용사 쌍으로 축소되었다.



[그림 1] 자극물 1 : 제의



[그림 2] 자극물 2 : 수단



[그림 3] 자극물 3 : 약식 사제복

2.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남자 163명, 여자 252명) 총 415명으로 구성 되었다.

자료수집은 1998년 6, 7월에 이루어졌고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디자인(의복유형 3)에 의하여 유층화된 임의 표집을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 의미미분 척도의 결과를 SA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제의, 수단, 약식 사제복 착용자에 대한 관찰자의

인상을 측정한 의미미분척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요인 분석하였다. 요인 분석은 3가지 다른 유형의 복식 착용자에 대해 형성된 인상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 모형과 varimax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두 개 이상의 요인 특성을 갖는 형용사쌍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1. 제의 착용자의 인상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한 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4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은 개방성 요인으로 19%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요인 2는 종교적 상징성 요인으로 11%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요인 3은 사제의 품성을 나타내며 9%의 설명력

<표 1> 제의 착용자로부터 도출된 인상요인

요인 1 : 개방성 요인		요인 2 : 상징성 요인		요인 3 : 품성 요인		요인 4 : 역능성 요인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폐쇄적인/개방적인	0.74	신뢰가 가는/ 신뢰가 가지 않는	0.70	소박하지 않은/ 소박한	0.79	독립적인/의존적인	0.69
고지식한/ 고지식하지않은	0.70	경건한/ 경건하지 않은	0.70	지배적인/순종적인	0.56	강한/약한	0.60
구속적인/자유로운	0.68	품위있는/ 품위 없는	0.70	사치스런/검소한	0.53	진취적인/ 진취적이지 않은	0.55
우울한/명랑한	0.66	성스러운/ 성스럽지 않은	0.68	이성적인/감성적인	0.52	여성적인/남성적인	-0.53
따분한/ 따분하지 않은	0.64	지적인/ 지적이지 않은	0.66	차가운/따뜻한	0.44	자의식이 약한/ 자의식이 강한	-0.57
무거운/가벼운	0.63	격식을차린/ 격식을 차리지 않은	0.58	포용적인/ 포용적이지 않은	-0.50	우유부단한/ 결단력 있는	-0.60
어두운/밝은	0.60	겸손하지 않은/ 겸손한	-0.48	토속적인/이국적인	-0.53		
사무적인/ 사무적이지 않은	0.54	순수하지 않은/ 순수한	-0.50	편한/불편한	-0.56		
권위적인/ 권위적이지 않은	0.53	이기적인/희생적인	-0.54				
현대적인/고전적인	-0.52	근엄하지 않은/ 근엄한	-0.58				
가까이하기 쉬운/ 가까이하기 어려운	-0.60	상징적이지 않은/ 상징적인	-0.60				
세련된/촌스러운	-0.68	사려깊지않은/ 사려깊은	-0.61				
다양한/획일적인	-0.72						
시대에 맞는/ 시대에 뒤떨어진	-0.74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9%		11%		9%		5%
총 설명력			47%				

을, 요인 4는 역능성 요인으로 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네요인의 cronbach' α 를 산출한 결과는 평균 0.80으로 나타났다.

요인 점수에 따른 결과 해석은 요인 1에서는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며, 고지식하지 않고, 다양한 인상을 의미하며, 요인 2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고, 경건치 않은 인상을 요인 3은 소박하고 순종적 인상을 요인 4는 독립적이고 의존적이고 약한 인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의의 착용자에 대하여 지각된 인상의 내현 성격 이론 체계는 개방성, 상징성, 품성, 역능성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 요인이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종교적 상징성은 이 보다 작았다. 이 결과에 의하면 제의는 개방성 요인에서는 시대에 맞고 개방적이며, 다양하고 고지식하지 않은 인상을 주어 전반적으로 경직성이 적었고, 사제의 덕목을 나타내는 품성요인에서는 소박하고, 순종적이며 따뜻하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 대중과 가까이 가려는 현대 가톨릭교의 기본 이념과는 매우 부합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유래되어 가톨릭 전례의식에서 착용되어지는 복식으로, 가톨릭 종교 복식중 가장 가톨릭교의 종교적 상징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 되어왔던 제의는 종교적 상징성의 요인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고 경건치 않은, 성스럽지 않다는 인상을 주어 종교적 상징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종교의식의 복식으로는 종교적 상징성이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수단 착용자의 인상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한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4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은 개방성 요인으로 19%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요인 2는 종교적 상징성 요인으로 15%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요인 3은 역능성을 나타내며 9%의 설명력을, 요인 4는 품성을 나타내며 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네요인의 cronbach' α 를 산출한 결과는 평균 0.80으로 나타났다.

요인 점수에 따른 결과 해석은 요인 1에서는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자유롭고, 밝으며, 가볍고, 개방적

인 인상을 의미하며, 요인 2에서는 경건치 않고, 성스럽지 않으며, 순수하지 않은 인상을 요인 3은 강하고 결단력있으며 독립적인 인상을 요인 4는 검소하고 소박한 인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단 착용자에 대하여 지각된 인상의 내현 성격 이론 체계는 개방성, 상징성, 역능성, 품성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개방성 요인이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종교적 상징성, 역능성, 품성 요인순서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제의의 요인구조와 유사한 체계를 나타내었으나, 제의에서는 품성 요인이 역능성 요인보다 설명력이 더 높은 반면, 수단 착용자에서는 역능성 요인의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사때만 착용하는 제의에 비해 일상적인 사제직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복장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관찰자들은 수단을 어둡고 무겁다는 기존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제의의 인상 형성내용과 같이 개방성 요인에서 자유롭고 밝고, 가벼우며, 개방적인 것으로, 품성요인에서는 검소하며, 소박하고 겸손하다고 인식하였지만 종교적 상징성에서는 경건치 않고, 성스럽지 않고, 상징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특히 수단이 갖고 있는 로브(robe)의 긴 스커트의 이미지가 여성적 성향의 고정관념적인 특성들로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역능성 요인에서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남성적인 것으로 인상형성 되고 있었다.

3. 약식 사제복 착용자의 인상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한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4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은 개방성 요인으로 21%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요인 2는 종교적 상징성 요인으로 15%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요인 3은 역능성을 나타내며 4%의 설명력을, 요인 4는 사제의 품성을 설명하며 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네요인의 cronbach' α 를 산출한 결과는 평균 0.74로 나타났다.

요인 점수에 따른 결과 해석은 요인 1에서는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자유롭고, 밝으며, 가볍고, 개방적인 인상을 의미하며, 요인 2에서는 사려 깊고, 상징적이며, 순수한 인상을, 요인 3은 약하고, 약하고

의존적인 인상을, 요인 4는 순종적이며 권위적이지 않는 인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식 사제복 착용자에 대하여 지각된 인상의 내현 성격 이론 체계는 개방성, 상징성, 역능성, 품성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개방성 요인이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종교적 상징성, 역능성, 품성 요인순서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앞서 분석한 수단의 내현성격 이론 체계와 동일한 것으로 비록 약식

이지만 사제의 일상 임무 수행시 착용한다는 착용 목적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의하면 관찰자들은 약식 사제복 착용자에 대하여 개방성 요인에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고지식하지 않다는 인상을 형성하고, 역능성 요인에서는 약하고, 우유 부단하며, 의존적으로, 품성 요인에서는 순종적이고 권위적이지 않는 것으로 인상 형성을 하여, 일반적인 현대 사무직 남성의 복식으로 인상 형성을 한 반면, 종교적인 상징성 측면에

〈표 2〉 수단 착용자로부터 도출된 인상요인

요인 1 : 개방성 요인		요인 2 : 상징성 요인		요인 3 : 역능성 요인		요인 4 : 품성 요인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구속적인/자유로운	0.79	경건한/경건치 않은	0.78	우유부단한/결단력있는	0.69	사치스러운/검소한	0.77
어두운/밝은	0.73	성스러운/성스럽지 않은	0.75	여성적인/남성적인	0.67	소박하지 않은/소박한	0.71
무거운/가벼운	0.69	지적인/지적이지 않는	0.71	강직하지않은/강직한	0.63	겸손하지 않은/겸손한	0.60
폐쇄적인/개방적인	0.68	신뢰가 가는/신뢰가 가지 않는	0.68	자의식이 약한/자의식이 강한	0.60	포용적인/포용적이지 않은	-4.75
격식을 차린/격식을 차리지 않은	0.64	품위있는/품위없는	0.67	자신감 없는/자신감 있는	0.57		
따분한/따분하지 않은	0.63	지배적인/순종적인	-0.44	독립적인/의존적인	-0.61		
우울한/명랑한	0.62	상징적이지 않는/상징적인	-0.53	강한/약한	-0.73		
고지식한/고지식하지 않은	0.60	근엄하지 않은/근엄한	-0.55				
사무적인/사무적이지 않은	0.59	순수하지 않은/순수한	-0.62				
권위적인/권위적이지 않은	0.52						
이상적인/감성적인	0.41						
진취적인/진취적이지 않은	-0.43						
현대적인/고전적인	-0.50						
가까이하기 쉬운/가까이 하기 어려운	-0.56						
편한/불편한	-0.56						
시대에 맞는/시대에 뒤떨어진	-0.58						
경직되지 않은/경직된	-0.64						
다양한/획일적인	-0.66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19%		15%		8%		5%
총 설명력		47%					

서는 사려 깊고, 상징적이며, 순수하고 성스럽다고 인식하여 3유형의 복식중 가장 종교적 상징성이 크고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의와 수단을 가장 가톨릭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며, 로만 칼라의 셔츠와 양복은 약식 사제복이라는 가톨릭 교회 내의 복식에서의 종교적 상징성의 부여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3가지 유형의 가톨릭 종교 복식의 인상내용을 살펴 본 결과 각각 복식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3유형의 복식 모두에서 개방성, 상징

성, 품성, 역능성의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중 개방성 요인이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아 관찰자들은 복식 모두를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가까이하기 쉬운 인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상 차원 중에서 평가적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Osgood 등(1957), 장동환(1964), 박혜선(1982), 강혜원(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사제복식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어 일반인들이 신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녀들에 대하여는 경직성이나 순수성이 강조되어 지

〈표 3〉 약식 사제복 착용자로부터 도출된 인상요인

요인 1 : 개방성 요인		요인 2 : 상징성 요인		요인 3 : 역능성 요인		요인 4 : 품성 요인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구속적인/자유로운	0.81	사려깊지않은/		강한/약한	0.75	지배적인/순종적인	0.66
폐쇄적인/개방적인	0.79	사려 깊은	0.75	독립적인/의존적인	0.68	이기적인/희생적인	0.60
어두운/밝은	0.78	상징적이지 않은/		자신감 있는/		권위적인/	
고지식한/		상징적인	0.71	자신감 없는	-0.41	권위적이지 않은	0.52
고지식하지 않은	0.77	겸손하지 않은/		여성적인/남성적인	-0.51	냉정하지 않은/	
무거운/가벼운	0.73	겸손한	0.66	우유 부단한/		냉정한	-0.43
우울한/명랑한	0.65	순수하지 않은/		결단력 있는	-0.73		
소극적인/적극적인	0.49	순수한	0.60				
따분한/		소박하지 않은/					
따분하지 않은	0.48	소박한	0.54				
사무적인/		근엄하지 않은/					
사무적이지 않은	0.45	근엄한	0.51				
이성적인/감성적인	0.44	활동적인/					
세련된/촌스러운	-0.40	활동적이지 않은	0.43				
편한/불편한	-0.55	격식을 차린/					
시대에 맞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0.50				
시대에 뒤떨어진	-0.64	신뢰가 가는/					
가까이하기 쉬운/		신뢰가 가지 않은	-0.53				
가까이하기 어려운	-0.66	품위 있는/					
다양한/획일적인	-0.68	품위 없는	-0.59				
경직되지 않은/		성스러운/					
경직된	-0.69	성스럽지 않은	-0.60				
		포용적인/					
		포용적이지 않은	-0.62				
		경건한 /					
		경건치 않은	-0.65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21%		15%		6%		5%
총 설명력		47%					

각되는 반면(남미우, 조정미, 1997) 신부들은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집단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풀이되어 최근 일반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 가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추세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복식을 대상으로한 연구와는 다르게 종교적 상징성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자극물이 가톨릭 교회의 종교 복식이기 때문으로, 종교 복식이 신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며 일반 복식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와 절제된 색상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러한 종교 복식이 가지는 상징성을 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가톨릭 교회의 전례의식에 착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종교복식인 전례복이나 수단보다는 현대적인 약식화된 로만 칼라의 수트에서 종교적 상징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사 시에만 착용하는 전례복이나, 성당 내에서나 특별 행사 시에만 착용하는 수단 보다 평상복인 로만 칼라 수트가 일반인들에게 좀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또한 개신교나 그의 종교 의식에서도 전례복과 같은 형태의 복식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톨릭교가 아닌 관찰자들은 로만 칼라의 수트를 가톨릭 교회의 전형적인 사제복으로서 종교적 상징성이 지각되었다고도 풀이 할 수 있다.

사제의 덕성을 나타내는 품성요인은 세 유형의 복식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의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에 의하면 사제의 직무에 철저히 요구되는 여러 가지 덕행으로 겸허(謙虛)와 복종(服從), 가난 등을 들고 있는데(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83), 관찰자들은 품성 요인에서 3유형의 사제복 모두를 소박하고 순종적이며 겸소하고 희생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착용되고 있는 사제복은 사제의 영적인 덕행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역능성 요인은 인상요인중 의복에 의한 영향이 가장 많이 받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제복에 대한 인상에도 역능성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전례복과 로만칼라 수트에서는 역능성 요인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빈민사목이나 교육 등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사도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성수도자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사나 고해성사등 전례의식에 더 치중하고 있는 사제들과의 역할의 차이로 관찰자들에게 지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단은 역능성 요인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여 강하고 결단력 있고 남성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검정색 색상이 주는 강함, 엄숙함 등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종교적 의미에서 신부의 로브(robe)의 착용은 중성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즉 이성의 복식을 착용한 사제는 신의 양성성을 모방한 것이며 분리되지 않은 성의 통합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한 형체 속에서 두 개의 성의 공존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힘의 근원이며 신성의 상징이기도 하다(이미션, 김민자, 1995). 따라서 관찰자들은 남성사제가 현대에서는 여성적으로 생각되는 로브형태의 수단을 착용한것에 대하여 이원적 구분인 성성을 초월한 중성적 이미지의 강인함을 지각하였을 것으로 풀이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가톨릭 종교복식에서 사제들의 복식유형이 착용자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세유형의 사제복 착용자에 대하여 지각된 인상의 내현 성격 이론 체계는 개방성, 상징성, 품성, 역능성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복식 유형별 인상 형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의는 시대에 맞고 개방적이며, 다양하고 고지식하지 않은 인상을 주어 전반적으로 경직성이 적고, 소박하고 순종적이며 따뜻하다는 인상을 주어 신자들에게 보다 친밀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반면 신뢰가 가지 않고 경건치 않으며, 성스럽지 않다는 인상을 주어 종교의식을 주례하는 복식으로는 종교적 상징성이 미흡했다.

둘째, 수단은 개방성 요인에서 자유롭고 밝고, 가벼우며, 개방적인 것으로, 품성 요인에서는 겸소하며, 소박하고 겸손하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제의에서와 같이 종교적 상징성에서는 경건치 않고, 성스럽지 않고, 상징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역능성 요인에서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남성적인 것으로 인상형성 되고 있었다.

셋째, 약식 사제복 착용자에 대하여 개방성 요인에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고지식하지 않다는 인상을 형성하고, 독립성 요인에서는 약하고, 우유부단하며, 의존적으로, 품성 요인에서는 순종적이고 권위적이지 않는 것으로 인상 형성을 한 반면 종교적인 상징성 측면에서는 사려 깊고, 상징적이며, 순수하고 성스럽다고 인식하여 3유형의 복식중 가장 종교적 상징성이 크고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유형의 카톨릭 종교 복식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제복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단서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응답자의 종교나 가치관(종교적 가치관등) 또는 의복관심 등으로 세분화하여 응답자 변인에 따른 인상의 차이를 규명해 볼 수 있으며 둘째, 의복의 색상 특히 제의의 색상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자극물 제작시 라인 드로잉(line drawing)과 실물 사진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특히 실물사진에서 착용자의 인상이 복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Bouska, M. L., and Betty, P. A.(1978), Clothing as a symbol of status :Its effect on control of interaction territory. *Bulletin of Psychonomic Sociology* 11(4), 235-238.
- Coursey, R. D.(1973). Clothes doth make the man, in the eye of beholder perceptual and Motor Skill 36, 1259-1264.
- Deaux, K & Taynor, J(1973), Evaluation of Male and Female ability; Bias work two way *Psychological reports*, 32, 261-262.
- Hamid, P.(1968). Style of Dress as a Perceptual Cue in Impression Forma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26, 904-906.
- Katz, D. & Braly, K. W.(1973), Racial stereotype of 100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8, 280-290.
- Long, T.J.(1978), Influence of uniform and religious status on interviewers, *Journal of Conuceling Psychology* 25, 405-409.
- Osgood, C.,Suci, G. J. & Tannenbaum, P. H.(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II,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In Compton, N. H., Hall, O. A.(1972), *Foundation of Home Economics Research*,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279-281.
- Zebrowitz, L. A.(1990), *Social Perception*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wie Publishing company.
- 김 현(1982), 전례복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20, 208.
- 김희선(1993), 現在 우리나라 가톨릭 사제복에 나타난 象徵性 研究, 복식문화연구회지, 창간호, 69-80.
- 이기정(1996), 중요요리,전례용어 해설, 서울 : 가톨릭 출판사, 166.
- 임상임·김현경(1998). 종교 복식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I)-고대 이집트를 중심으로-, 복식 39호, 21.
- 문선구(1995), 수단이 주는 상징적 의미, 나무터, 창간호, 40.
- 손세희(1976), 가톨릭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 대학원 석사 논문, 7.
- 이민선·김민자(1995),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고대에서 근대 까지-, 한국의류학회지. 19(2), 340-355.
- 장동환(1964),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논문집, 191-206.
- 최윤환(1986), 미사해설, 서울 : 가톨릭 출판사, 17
- 최상범(1985) 전례복의 상징에 대하여, 나무터, 창간호, 전주교구신학생활, 30.
- 한국 가톨릭 대사전 편찬 위원회(1989),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 교회사 연구소, 2판, 서울, 1042.
-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198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559-563.